

양사언·박순·서성·조경 선생 집중조명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2007 학술 발표회



양사언선생



박순 선생



서성 선생(신도비)



조경 선생

포천은 예로부터 나라를 빛낸 위인·선열들을 많이 배출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이며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포천문화원은 최근 선현들의 업적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라는 주제로 2007학술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포천의 선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학문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홍순석 경기문화연구소장의 '봉래 양사언 선생의 생애와 문학', 신윤철 경희대 명예교수의 '사암 박순 선생의 생애와 사상',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약봉 서성 선생의 실질·실천 중심 사상',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권인호 대진대 철학과 교수의 '용주 조경 선생의 생애와 공업 및 학문사상 연구' 등의 주제로 발표됐다.

봉래 양사언 선생을 연구한 홍순석 교수는 "봉래 양사언 선생의 초년에는 주로 포천지역에서 공립한 가운데 시서와 거문고를 벗으며 안빈낙도의 흥취를 즐겼으며 중년에는 강릉·고성·회양·철원 등 관동지방의 수령으로 재임하여 선정을 베풀면서도 산수 자연을 유려하며 도가적 흥취에 몰입했고 말년에는 안빈부사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관리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한편, 도가적인 흥취에 몰입된 경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경의 고갈명에서 지적한 바대로 그는 異人으로 태어나 내외의 방술에 몰입했고 그를 일러 仙風道骨이라 말하고 작품을 평하여 탈속한 정취가 배어나다고 한 것은 가장 집약적이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암 박순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발제한 신윤철 교수는 사암 박순의 학문은 한대의 사마천 반고의 역사학과 당대의 한유와 유종원 등의 문장을 비롯하여 송대의 소강절이나 장재를 비롯하여 주돈이와 소강절 및 장재, 낙양의 정호, 정이 형태의 성리학 진수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암이 죽은 후 옥병서원은 영광과 포천의 그 주변 학자들이 즐겨 찾고 송죽 같은 절개와 수월 같은 정신을 이어받는 선비의 정신적 고장으로 그의 명성을 굳혀왔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암과 옥병서원은 조선중기를 지나면서 기호학파의 많은 학자들에게 중요한 학문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봉 서성 선생의 실질·실천 중심 사상'을 발표한 김태영 교수는 약봉 서성선생의 "사암마다 울다"고 생각하는 편을 따르고 남보다 논의를 할 때에도 뜻이 다른 견지를 지켜, 조금도 구차스레 남과 맞추려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평상시의 처신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사암마다 그 객관적 이치를 끝까지 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객관적 이치를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그 사암의 실질 내지 본질을 꿰뚫어 알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며 역으로 당해 사암의 실질 내지 본질을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비로소 거기 가장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객관적 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실천했다.

'용주 조경 선생의 생애와 공업 및 학문사상 연구'를 발표한 권인호 교수는 "용주는 유학의 종지인 '修己治人'을 바탕으로 한 민본사상에 출발하여 忠國(君)愛民의 정신과 공정무사한 인물로서 현재를 올바르게 분석 비판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본보기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용주는 평생 出處大節에 엄격하였고 청백리로서 유학의 修己治人에 힘을 다해 經世濟民과 經國濟世에 애쓰고,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외교에도 平天下를 위해 특별한 지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용주에 대한 연구는

경기북부 포천의 지역 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중국(동북공정과 대중화주의)·대일본(역사왜곡과 극우파의 군사대국화)·대미국(세계화의 FTA 등)의 외교 전략에서부터 점점 그 정도를 더해가는 정치인들의 사리사욕과 부정부패 및 반민주적 정치 행태를 반성하는 지점에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발표회를 마련한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은 "선현들의 높이신 뜻과 심오한 학문의 경지를 이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술발표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지방스런 선비의고장, 충절의 고장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지난해 한음 이덕형과 오성 이항복 선생에 대해서는 학술발표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주로 국가에 기여한 15명을 선정해 그중에 발제자와 협의해서 4명을 선정해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문화원은 최근 선현들의 업적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라는 주제로 2007학술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취재파일 포천지역 군사도시 이미지 발전장애 요인

首整法 개정 비수도권 반발 무산 위기

포천시 추진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목잡혀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주민들은 6월제 원형 포사격장 폐쇄 혹은 이전을 요구하면서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세기 동안 군부대로 인해 피해를 봐 왔는데, 군부대가 우수한 성능의 포사격 연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90mm나 105mm 포사격을 할 때는 그나마 참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120mm포사격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군부대측이 그동안 수십차례 피해방지 대책을 약속해 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이제 군부대의 약속을 믿을 수 없고 점점 커지고 있는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포사격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게 됐다.

군부대와 관련한 주민피해 사례는 이동면 연곡리 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포천지역에는 400만평의 영령사격장과 600만평의 승진훈련장, 원평사격장 등 군부대가 훈련이나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총 1천30만평에 이른다. 포천시 전체 면적의 32%(260.83km)정도다 군부대와 관련되어 있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 포천지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개 지방자치단체에 2개 군단과 2개 사단, 7개 여단과 예비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훈련과 사격으로 인한 지난 50년 동안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상상하기 힘들다.

포천시는 군사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역발전이 막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고비로 거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포천시 또한 市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앙방송 매체는 물론 각 홍보매체에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 지역의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경기북부가 지역구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수도권경비계획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비수도권 지역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희생해 온 것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반환공여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군기지 이전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도시 사업구역에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이 제정되자 포

천시를 비롯한 미군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뭔가 이루어지나 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런데 공여구역 특별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위법적 성격을 가지는 수도권경비계획법 개정이 필수조건이다. 아무리 공여구역 특별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수도권경비계획법에 의거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포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년제 대학유치사업을 비롯해 영북면과 이동면, 이동면을 포함하는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역항공설립 등 대형사업들은 수도권경비계획법 규정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

수도권경비계획법으로 인해 접경지역지원법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들도 발목이 잡혀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전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에 대해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련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포천시의 경우 관인면과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등 6개 지역이다.

접경지역지원법 제3조에 명시된 규정, 즉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지만 국토개발법과 수도권경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때문에 걸로는 뭔가 지원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포천지역에 소재한 접경지역은 수도권경비계획법으로 또다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이라고 대규모 위탁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4년제 대학신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포천시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포천시를 성장지역으로 등급시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포천시는 정체지역으로 분류돼 중소기업들에게 법외 인자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감면혜택을 줬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9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안을 통해 포천시를 대전이나 부산, 대구, 울산시와 동일한 성장지역으로 분류해 그동안 부여했던 혜택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인 대책이나 규제는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자체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려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지역을 분류해야 한다. 경기남부 지역은 실질적인 수도권이다. 그러나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기 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할 소외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소외된 지역에 부여하는 혜택마저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미군공여구역 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 혜택을 주겠다고 해 놓고 수도권경비계획법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들 지역주민들은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병원 세탁물 전문



최인환 대표



- 풍부한 노하우
- 저렴한 가격
- 위생적인 세탁

최첨단 기계도입 · 양질의 세탁문화를 열어가는 완주섬유

이제부터~ 세탁 걱정 끝!

☎ 031) 534-3041 Fax. 031)534-3042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373